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호
2020년

웹사이트: voice.kumcabq.com



CONTENTS

- | | |
|---|--|
| 한인회소식 얼마나 힘드십니까? 민명희:2 | 칼럼 코로나 시험 김기천 :9 |
| 한인회소식 안녕하십니까 김숙희:2 | 수필 여든을 맞으며 이정길 :10 |
| 한인회소식 COVID-19 교민지원:3 |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이상목 :11 |
| 교회소식 연합감리교회/클로비스한인교회:4 | 시 뽕나무 밑을 지나며 임찬순: 12 |
| 코로나소식 메릴랜드주 코로나진단키트/
LA "씨젠"키트/콜로라도주 한국산키트수입:5 | 의학상식 전염성 바이러스와 알버커키
 최성원 : 9 |
| 지역사회 탈북민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당선
/뉴멕시코 코로나 현황/ 부고 :6 | 건강상식 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찾으세요
 김준호 : 16 |
| 코로나소식 주정부 코로나 검사 지침발표 : 7 | 생활상식 6가지 사기 조심하셔야 합니다:17 |
| 코로나소식 CNN에서 한국 코로나
테스트 키트 제조회사 소개 :8 | 광고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19
광고 한인 업소 안내:20-22 |

얼마나 힘드십니까?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속에서의 몇달동안 주변의 커다란 삶의 변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전세계가 다 함께 겪는 고통의 날들이지만 그래도 뉴멕시코주에 사는 저희들은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한인 동포님들과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을 잘 예방하시고 또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장갑사인, 예방력을 키워주는 음식섭취,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잘 견디고 계시는 인내심을 존경합니다. 그동안 앞만 바라보고숨차게 질주하며 지낸 날들을 조금씩 속도를 늦추며 생각하며 주위를 인식하면서 각자의 이웃인 지인들과 안부를 물으면서 염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공간에 계시지만 마음은 온세계로 다닐수있고 그 가운데서 우린 좋은 인연으로 이곳 뉴멕시코주에 함께 살아가니 햇살이 뜨거운 날들에는 같이 그늘에서 쉬어가고, 슬픈 날에는 같이 위로하며 눈물 닦아주고, 기쁜날에는 두 손 맞잡고 기뻐하며, 힘든 날엔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부족한것을 채워주며, 그렇게 우리 모두 삶의 여정의 길을 아름답게 함께 걸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의 장으로 초청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아래 놓여 있는 저희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매장 방식에 상심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앓고 있는 이들을 염려하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민명희

뉴멕시코한인회 회장



가까이 있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걱정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소서.

당신 아드님께 청하시어, 환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이 성자께 위로를 받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긴급 상황의 최일선에서 다른 이들을 구하고자 목숨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의 영웅적 노고에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선의와 건강을 주소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곁에서 돌보아 주시고, 복음을 충실히 따라 사목적 배려로 모든 이를 돕고 지원하는 목자들 곁에 함께해 주소서.

저희가 위대한 한 가정의 일원임을 깨닫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는 유대를 인식하여, 형제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수많은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확고한 믿음과 인내로운 봉사와 항구한 기도 안에 머물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근심하는 이들의 위안이신 하느님, 곤경에 빠진 모든 당신 자녀를 보듬어 주시고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가 이 비참한 감염병 확산에서 해방되어 다시 일상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 길을 밝혀 주시니 당신께 저희를 맡기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부터 18대 한인회 회계를 맡게 된 김숙희입니다. 2020년 상반기 한인회 활동이 COVID -19로 인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삶의 쓰나미는 많은 분들의 삶의 패턴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한된 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더욱이 경제활동이 마비됨으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과 고비를 맞고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서로에게 모두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인회에 활동을 통해 이런 가슴 따뜻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김숙희

뉴멕시코한인회 회계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저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좋은 일에 쓰이는 한인회 자금이 한 penny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일지라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1차 Covid-19 교민지원 시행

제2,3차 Covid-19 교민지원 시행



한인회에서는 4월 18일-19일동안 제1차 Covid-19 교민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1차 지원은 교회및 단체에서 수집한 연료하신 한인교포중 홀로 생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알버커키 지역 25 가정, 산타페 지역 8가정이며 봉사자분들께서 18일날 필요물품을 한인상점과 마트를 통해 구매했고 김치는 직접 한인회에서 만들어 19일 오전 10시부터 1시사이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음식구매, 제작, 포장, 배달에 힘써주신 봉사자분들 그리고 도네이션을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회에서는 추후 누락된 해당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예정입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한인회장 (505-321-7274) 수석부회장(505-259-5858)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11:30AM 한인회에서 UNMH ED , 중환자실, COVID 19 treatment Unit and UNM Sandoval County Hospital ED, 중환자실 총 140개 한식으로 준비된 정성어린 도시락을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정 수석부회장님, 조문성 이사회 간사님, 한인회 회계 김숙희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orean BBQ Sushi & Sake 고독교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지역 동포님들의 도네이션과 한인회의 힘을 합해 함께 지역사회 이웃들과 나눔을 할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도네이션 해주신분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월 3일에는 독거노인과 어버이들을 위한 마스크(한국학교 포함-조규자 전회장님 기증), 장갑, 음식 픽업(2:00 PM)및 배달을 한인회 임원 여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교회소식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소식

저희 교회 선교부는, 지난 5월 3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바호 인디안들을 위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손수 만드신 마스크와, A-1 마켓 신육주권사님과 신경순권사님의 누이되시는 신경순성도님께서 기증해주신 N95 마스크,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위생용품, 식료품 등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교인이면서 나바호 마을 Sheep Springs주민이신 세이디 교우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과 물품 도네이션을 통해 나바호 인디안 선교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이디 교우

그리고, 알버커키 모닝스타 양로원으로부터 지난 4월 초에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신 한승우전도사님께서 295 개의 마스크를 수집하여 모닝 스타 양로원에 전달하셨습니다. 손수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주신 성도님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향옥 집사, 유금님 권사, 김안숙 권사, 서순분 집사, 김인주 집사, 문봉애 권사이십니다.



모닝스타양로원 전경과 마스크를 감사하는 양로원의 여러분

클로비스한인교회 소식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관계없이 모든 공적인 예배를 교회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새벽기도회가 아침기도회로 변경되어서 아침기도회는 오전 7시에 모입니다.(월화목금) 수요일 모임은 오전 11: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은 교회창립 29주년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본래는 교회창립기념하여 외부강사를 청하여 19일부터 22일까지 부흥회를 계획했었습니다만 미국내의 여행자제 권고를 받아 취소하였습니다. 미국내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추후 다시 부흥회를 열 계획입니다. 늘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클로비스한인교회 이 성희 목사

A1 Oriental Market 의 신육주 권사님과 신경순성도님께서는 경매를 통해 어렵게 구입한 N95급 마스크 150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또,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에서는, 여선교 회장직을 맡고 계신 윤태자 집사님께서 지난 4월부터 자비로 요리를 직접하셔서 노약자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매주 음식을 배달하는 일에 협조해주신 여선교 임원분들과 젊은 엄마팀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김숙경 사모)

온라인 예배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없게되어 모든 예배모임은 인터넷 온라인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시작 10분전에 카톡과 교회 페이스북(@KUMCABQ)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중(화-토)에는 아침 7시예배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주일예배는 오전 11시로 시간 변경은 없으며 모든 온라인 예배 스트리밍때에는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한승우 전도사님께서 댓글란에 설교를 영어로 동시통역(번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때 화면 밑에 있는 <구독> 또는 <Subscribe> 단추를 눌러주시면 쉽게 다음 온라인 스트리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한국에서 코로나진단키트 수입



미국 메릴랜드 주가 한국 업체로부터 구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50만회 분을 전달받았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4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진단키트가 대한항공 777여객기에 실려 볼티모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자신과 부인 유미호건 여사가 직접 공항에서 이를 맞았다고 밝혔다. 호건 여사는 한국 이민자 출신으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이번 진단키트 구매를 위한 한국 업체, 관계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우리가 부딪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진단 키트의 부족”이라면서 진단검사 없이 경제활동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22일 기준으로보면 메릴랜드 주는 7만1천577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만4천여명이 감염 확진을 받고 500여명이 사망했다. 수입한 키트는 여러 한국회사들이 검토되다가 결국 LabGenomics사(社)와 계약이 성사됐다고 NYT는 전했다. 50만 키트 구매에 투자된 액수는 9 백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자료 출처: VOA Korea 4.22.2020 /NYT)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부인 유미호건 여사

LA, 한국에서 '씨젠'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한국산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진단키트 2만개를 수입했다.

CBS 방송에 따르면 LA시와 카운티는 3월24일 “한국의 ‘씨젠 (Seegen) 테크놀로지’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개를 구입하기 위해 125만달러를 지불했다”라고 발표했다.

LA시와 카운티 측은 앞으로 “매주 10만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큰 계약을 맺고져 씨젠 측과 진단키트 추가 구입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CBS는 “현재 미국에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진단키트를 제조·보급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릭 가세 티 (Eric Garcetti) 로스 앤젤레스 시장은 지난 4월29일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무료 테스트를 제공한다는 공고를 발표해서 텍사스 휴스턴에 이어 시민들에게 무료 코로나 테스트 혜택을 주는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콜로라도 주에서도 한국에서 코로나진단키트 수입

콜로라도주에서도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수입 CNN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4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약 15만회분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이번 주말 한국에서 도착한다. 다음 달 15만회분이 더 늘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콜로라도 주에 국산 장비가 수출된 데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이수혁 주미 대사 등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로라도주에서 구입한 키트는 이원다이에그노믹스 지 회사인 EDGC 헬스케어의 제품이라고 한다.

지역사회

탈북민 태영호 ·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와 북한 ‘꽃제비’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가 지난 4월15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VOA가 보도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성호씨는 2018년 1월 말에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연설때 초청받아 참석했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방문 여행기간중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일을 계기로 2018년 10월29일 저녁 간증집회를 갖게 되어 북한 인권에 대한 소개와 간증을 해준 일이 있다. (참고기사: 광야의 소리 2018년 11/12월호 "탈북자 지성호 씨 간증 집회 열어")

아래의 사진은 간증 집회를 마치고 친교시간중에 교우들과 찍은 사진이다.



부고 김연복 여사

뉴멕시코 한인회 민명희 회장님의 어머니(김연복 여사)께서 3월 29일 향년 91세로 호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장남: 민병수, 차남: 민병선

장녀: 민명희, 차녀: 민창희

손주: Lisa, Monika and Jack Collins, Brandy Likes, Isaac, Michael Min, and John, Michael Min.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아래의 글은 유가족 민명희 회장의 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COVID-19으로 인해서 호주에 계시던 어머니한테 여행하는것이 그곳 들어가서 2주 격리되는 관계로 가지 못하고 그곳 현지에 거주하는 두 자녀의 보살핌하에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내 드려야만되는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서로 뵈지 못한 이 세상과의 인연이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행복한 추억의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어머니께서 열심히 예수님 사랑을 몸소 삶속에서 실천하시고 떠나신 그분을 닮아서 지역사회에 도움이될수있는 가족으로 성장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유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뉴멕시코 코로나현황

미셸 루한 그리삼 주지사는 지난 4월22일 발표하기를 뉴멕시코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수그러짐을 보이고 있고 진단 테스트를 늘려감에 따라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현재까지 받고있는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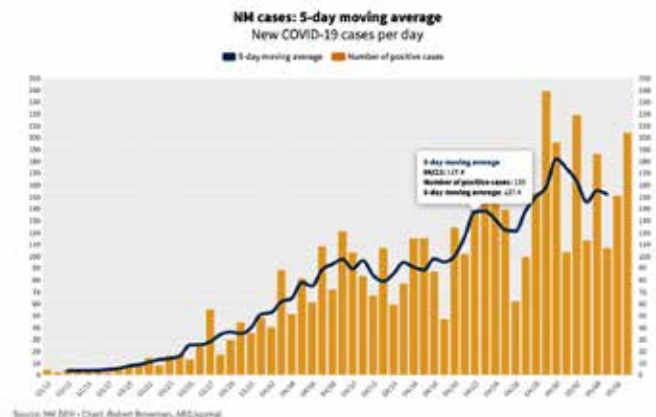
그러나 주지사는 5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재택명령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 한다고 했다.

주지사는 뉴멕시코주의 많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셸 루한 그리삼 주지사는 지난 5월1일 꺾임을 3일 동안 폐쇄하여 뉴멕시코 북서쪽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늦추기위한 시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가 기대한 만큼 보이지 않게 되자 Gallup 도시 폐쇄하는 긴급명령을 5월10일 정오까지로 연장했다.



뉴멕시코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통계



부고 존 피더슨

뉴멕시코 한인회에서 자주 봉사해주시는 김경희분 부군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 성함은 John K Pederson입니다.

유족으로 김경희 Connie Peterson, 아드님

Sean Pederson

장지: Santa Fe 국립묘지

연락처: Connie Peterson

10532 Calle Me Merida NW

Albuquerque, NM 87114 입니다.

코로나 소식

‘주 정부 코로나 검사 지침’ 발표

미국의 소리 (VOA)방송에 나오는 4월28일자 <아메리카 나우> 에 나온 뉴스의 일부를 전재해서 소개합니다. (오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각 주 정부 소관으로 진행하고,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 관해, 각 주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지침을 27일 연방 정부가 내놨습니다.

“연방에서 지원하고, 주들이 주관하며, 지역별로 시행한다”는 ‘(감염증) 검사 계획과 신속대응 사업에 관한 청사진’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염증 검사의 책임은 각 주 정부에 있고, 연방 정부는 장비와 자원을 공급하는 체계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원격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각 주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지사들은 “아주 흥분할 만큼” 기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일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지침에 따라 검사 역량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지만, 하루에 주별로 몇 건의 검사를 소화할지 등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사진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이 각 주 정부의 경제 사회활동 재개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충분한 검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봉쇄를 풀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등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려면, 매달 주별 인구의 최소 2%를 검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요구해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사진 발표에 맞춰, ‘2% 검사 역량’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반응은 비판적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이날(4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아무것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주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성급한 경제 활동 재개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매체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펼친 데 이어, 이번 청사진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청사진이 감염증 검사 주관과 지원·시행 주제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 정부가 잇따라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있습

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7일, 대다수 소매업장과 영화관, 음식점 등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이같은 발표는 도시별 조례로 시행중인 ‘자택 대기령’에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따라서 텍사스에서는 사실상 자택 대기령이 해제됐습니다.

애벗 지사는 다만, 영업 재개 결정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행 일자리는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일로 공표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자택대기령이 2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종들이 ‘길가 영업(curbside sales)’을 시작하고, 응급 수술 등으로 제한됐던 의료기관의 시술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자택대기령을 통해, 우리가 바라던 것(바이러스 확산 억제)을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대면 영업도 5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아울러 사람 간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이발소, 미용실, 문신시술소 등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무업종 등도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4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든 영업 활동과 사업체 운영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조치에 일부 엇박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최대 도시인 덴버의 마이클 헨콕 시장은 시내 자택대기령을 5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변 카운티 당국도 이같은 덴버시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8일 현재,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관련 사망자는 5만6천 명이 넘습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코로나 소식

CNN뉴스에서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키트 제조회사 소개

지난 3월 12일 미국의 CNN방송에서는 “어떻게 3 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를 한국 회사가 만들었나?” 라는 제목의 탐방기사를 내놓았다. 기사전모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 중 한 회사는 이 병이 한국에 들어 올것을 예치하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식별하기 위한 테스트 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1월 16일, 분자생물공학 회사인 Seegene의 최고 경영자 겸 설립자인 천종윤씨는 그의 팀에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것은 중국을 휩쓸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코비드-19로 명명되기 전이었고 한국에서 첫 번째 사례가 확인되기 전이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분자 진단 회사야. 우리는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빠른 진단키트 개발 성공의 열쇠는 이 회사에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컴퓨터와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다. 검사 키트로 알려진 테스트는 여러 개의 화학 용액으로 구성된다. 샘플은 환자로부터 채취되어 용액과 혼합되며, 특정 유전자가 존재할 경우 반응한다. “컴퓨터가 없었더라면 이 같은 시험을 개발하는데 2~3개월이 걸렸을 것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몇 주 만에 해치웠다”라고 천 천종윤씨는 말했다.

또하나의 성공의 열쇠는 사용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필요한 서류를 한국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데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번에는 일주일도 걸렸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 일하는 과학자 팀을 이끈 이대훈씨는 KCDC가 이렇게 빨리 시험 키트를 승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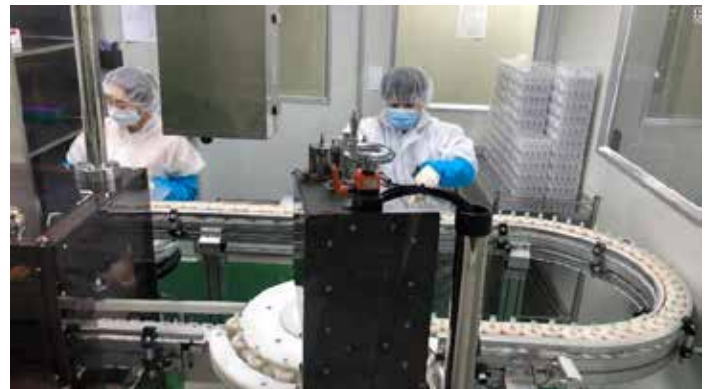
2월 중순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2월 23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씨젠의 천종윤씨는 결단을 내렸다. 그의 회사의 395명의 전 직원은 각각의 부서에서 하든 모든 일을 멈추고 Coronavirus 테스트 키트를 만드는 데만 주력하도록 했다. 그 회사가 생산해온 50여 개 제품의 생산을 2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는 “우리 회사 전 직원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것은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이

조립라인에 앉아 포장을 한다든지 본래의 연구 개발을 중단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Seegene은 한국에서 Coronavirus 테스트 키트를 제공하는 4 개의 한국 기업 중 하나이다. 이 회사는 또한 이탈리아와 독일을 포함한 약 30개국 수출에 직면해 잘 대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주일에 약 10,000개의 키트를 만들고 있으며 각각의 키트는 100명의 환자를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사당 2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매주 100만 명의 환자를 검사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다른 시험 키트의 재고가 3개월치여서 기존 주문에 1~2개월치 수요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천사장은 회사가 계속해서 Coronavirus 테스트 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필요성은 금전적 이득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위해 기여해야 된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씨젠 사의 천종윤 사장은 탈북자 정착을 위해 세워진 두리하나 선교회 대표이신 천기원 목사의 조카가 되신다. 천기원 목사는 산타페에 두리하나 선교회 미국 지부를 두게된 이후 매년 산타페와 알버커키를 방문해 오셨다.



코로나 시험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모임이 중단된 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정부에서는 매일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밖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금지가 되어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지요.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취급하는 비즈니스만 열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사람들 간에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서로 간에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들은 예전에 볼 수 없는 광경이지요.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 직장,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달라질 세상의 모습에 대해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처 대처하지 못한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도 위와 같은 갑작스런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한 친교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크리스천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이 시험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크리스천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시험이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적인 면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형식과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스스로 영적 성장을 위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따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모이는 예배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정해놓고 찬양, 기도,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개인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는 방학을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본인이 싫든 좋든 학교 규율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방학을 하면 학생은 개인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하지요. 우등생들은 방학기간이라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여 실력을 쌓아둡니다. 그러나 낙제생들은 방학기간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여 그나마 배워둔 것들도 잃어버리고 말지요. 학교에서 정해진 규율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비교적 편하고 쉽습니다. 혼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은 그만큼 자신을 절제하며 관리할 줄 아는 성숙한 학생이지요. 반면에 낙제생들은 방학기간에 절제와 관리를 할 줄 몰라 방종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 밖에서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실한 크리스천인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교회 밖에 아무도 없는 골방 안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입니다.

시험이나 역경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집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면 이제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식구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영적 인도자를 통하여 매일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리며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시험을 통해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여든을 맞으며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사람의 수명은 20세기 들어 전보다 30년이 길어졌다. 당시의 과학자들, 교육자들, 사회 운동가들이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과감히 문화를 바꾼 결과였다. 우리는 지금 식품의 공급이 안정된 상태에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며 산다. 위생 상태가 개선되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교육 연령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며, 정보가 재빨리 유통되어 어디든 도달하는 시대다.

시월이면 내 나이 80이 된다. 도무지 믿기지를 않는다. 가끔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때마다 삶이 곧 끝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의식하고는 한다. 집안의 내력으로 보나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내내 시달리지만 하던 사실로 미루어 보나, 70만 채워도 오래 사는 거다 싶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길어지는 바람에 사회가 노령화하고, 그에 따르는 인구의 변동이 생활 전반에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그것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본다. 전문가들은 오래 사는 사람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뒤로 날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회는 늘어나는 노년 인구와 은퇴자들만 보다가,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 새로운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높은 임금만을 보다가, 경제를 부흥시켜 주는 폭발적인 소비 시장도 보기 시작했다.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 보다가, 다채로운 힘을 가진 세대 간의 새로운 공동체도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문화를 다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한다. 연장된 수명이 무엇을 제공하는가를 물어 구습을 타파하고 생활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노년기만이 아닌 인생의 모든 단계 즉 유아기 · 청년기 · 중년기를 모두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꾸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사려 깊게 그리고 순항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해를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넷 또는 다섯 세대가 동시에 살고 있는 시대를 맞아 가족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4세 미만보다 많을 때 사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오늘날의 늙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장차 올 앞날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길고 밝은 미래를 마음 속에 그려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한다. 인생을 다시 설계하여 좋은 습관이 저절로 붙게 한다. 다른 세대의 사람과도 친구가 됨으로써 사회 조직망을 다양화한다.

세상은 벌써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노령화가 주는 어려움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겨 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킴이 서비스’가 하나의 좋은 예다. 우편물 배달 경로에서 사는 노인들을 우체부들이 주시하여 노인들의 상태를 그때그때 가족에게 타블렛으로 알려 주는 제도이다. 우체부들은 월급을 조금 더 받고,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도 거의 없으며, 효과는 아주 커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노년은 인생의 계절로 치면 쓸쓸한 겨울이고, 하루로 치면 한낮이 지나 해질 무렵이다. 저녁 종소리가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때다. 팔십의 나이에는 치매며 뇌졸중 등 신체에는 물론 정신에도 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발생한다. 거동도 느려지고,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도 잘 떠오르지 않으며,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기력도 약해진다. 남아 있는 원기나마 절약해서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모든 생리적 기능이 감소하면서 개성이 극히 주관화되어 불안·불만·저항의 경향이 현저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또래의 3분의 1은 이미 세상을 뒀고, 그보다 많은 수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 빠져 있으나 마나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취감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년을 평화롭게 보낼 수도 있다. 현실을 떠나 그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 덤비지 않고 사리를 너그럽게 판단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쾌락이나 탐욕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그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니던가. 85세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제대로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아주 흔하다. 따라서 나이 먹는 것은 기대해야 할 일이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몇 가지 자잘한 신체적인 문제를 겪으면서도 80의 나이에 불구가 되지 않고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 80년 동안 받아 온 주위의 도움에 감사한다. 사는 동안 놀라운 일, 굶은일 등 수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음에도 감사한다. 나무랄 데 없는 화창한 날씨를 보면 ‘죽지 않기를 잘했구나!’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법,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믿음도 관심도 갖지 않는다. 지난 일은 웃어 넘기자. 골고루 챙겨 먹자. 그러면서 나이와 함께 성장하자.

영어이야기 8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virus)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 앓거나 목숨을 잃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뿐 아니라, 사람들간의 친교도 차단하는 social distancing 정책으로 집안에 박혀(stay-at-home) 지내는 일이 많아져 평시의 생활태도가 바뀌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home”은 명사(my home), 형용사(home project), 부사(go home)로도 쓰입니다. “I’m going to Korea.”라고 말할때에는 “to”가 필요하지만, 집에간다고 할때엔 “to” 없이 “I’m going home.”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나들이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We are home.”(이제 집에왔다)라고 하지만, “너 지금 어디 있니?”하고 누가 물었을때 “나 집에 있어” 할 때에는, “I’m at home.”이 자연스러우며, “집에 머물라고” 말할때에는, “Stay at home”보다는 “Stay home”이 어감상 좋습니다. 명사가 뒤에오는 경우, 예를 들면 “stay-at-home order” 나 집에만 있는 주부는 “stay-at-home mom” 이지 “stay-home mom”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라”는 “Stay healthy”, “따뜻하게 지내라”는 “Stay warm”, “안전 조심하면서 가세요”는 “Drive safe or Drive safely”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going to store”는 되어도, “going to home”이라 하지않고 “going home”으로 말합니다.

우리말도 12시12분을 “십이 시 십이분”이나 “열두 시 열두 분”으로 읽지않고 “열두 시 십이분”으로 읽는것이 어감이 좋습니다. 방역의 한 수단인 격리(quarantine)조치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lockdown이라고 합니다. The school has been placed on lockdown.(학교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사태로 신조어도 생겼는데 COVID-19의 COVID와 IDIOT(천치, 바보, 멍청이)를 합성한 Covidiot는 시나 주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자, 감염지역으로 휴가가서 자랑스럽게(?) social media에 올리는자, 생필품을 사재기(hoarding)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평시에 물건이나 군사무기를 비축해두는 것은 stockpile입니다.

Virus는 라틴어에서 나온말로, 독(poison or noxious liquids)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20~300 nm로 겉은 흰자질(protein)로 둘러 쌓이고, 유전체인 RNA로 구성된 미생물로, 살아있는 세포(living cell)속에 들어가서 세포분열을 이용하여 자기도 같이 분열하여 복제하는(replicating)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1 nm는 0.00000001미터입니다. virus는 혼자서는 살아갈수 없기때문에 동식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복제하며 감염시킵니다. 2000년대초에 창궐했던 SARS나 MERS처럼 이번 virus도 coronavirus인데, 지금 겪고있는 병의 이름은 COVID-19(Corona Virus Disease

2019), 이것을 일으키는 virus이름은 SARS-Cov-2입니다. virus둘레에 튀어나온 것이 왕관처럼 생겼다해서 coronavirus로 불립니다. 개기일식때 볼수있는 태양둘레의 관처럼 보이는 빛의고리나, 꽃이나 앞으로 만든 화관(garland, wreath), 교회당천장에 매단 원형촛대도 corona라고 부르는데, 왕관을 뜻하는 영어 crown의 라틴어격으로 왕관에 관한것을(모양같은) 묘사할때 주로 corona를 사용합니다. virus의 형용사는 viral로 바이러스감염은 “viral infection”, 전염병은 “a contagious disease 또는 epidemic”이라 부르며, virus가 전염되듯, 삼시간에 방송이나 Internet을 타고 유명해지는것도 viral을 사용하여, “Within days Gangnam-style went viral.” (강남스타일은 삼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ARS나 MERS처럼 COVID-19도 coronavirus이기 때문에 새로운 coronavirus란 의미로 novel coronavirus라고 부르는데, novel은 명사로 “소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 새로운(new), 전에는 없었던의 뜻입니다.

지진이나 중국의 우한지역같은 coronavirus 진원지를 epicenter, 전염병을 epidemic이라고 하는데 (flu epidemic: 독감유행), “epi”는 on 또는 above의 뜻이며, center는 가운데, demic은 그리스어의, 사람들을 뜻하는 demos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epicenter는 가운데 위에 있으므로 진원지가 되겠고, epidemic은 사람들에게 붙어 널리퍼져있는의 뜻이되어 전염병으로 사용된것입니다. 어떤것이 급속히 퍼지는것을 묘사할때도 epidemic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pidemic은 어느 한지역을 뜻하지만, 전국적, 세계적으로 퍼지면 pandemic이 됩니다(A pandemic is a worldwide epidemic: global pandemic). 말라리아처럼 열대지방인 특정지역에 퍼져있는 병은 endemic이라고 합니다. pandemic의 pan은 전부(all) 또는 어느 특정그룹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panacea(패너지아)는 만병통치약, 북미, 중남미를 모두 일컫는 Pan-American을 들수 있습니다. demos에 어원을 둔 예로, Rio Rancho시 demographic data(인구통계학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은 11.7%,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82%, 백인은 80.36%, 외국출신은 6%, 중간가족수입은 \$63,180, 인구(2018년)는 98,02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를 Democracy라고 하는데, demo는 사람, cracy는 라틴어의 krata에서 온말로 권력(power, rule)을 뜻하니, 권력이 사람들(즉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되어 Democracy가 민주주의의 뜻이 됩니다. 민주당원은

뽕나무 밑을 지나며



임찬순

United Methodist Church
of the Covenant, Pastor
Arlinhngton, TX

팬데믹으로
주일 예배시간
마을을 걷는다.
부활절 네번째 주일

봄이 이리 한창인데
바이러스는 때도
모르는가 보다.
이제 떠나갈 때 넘었는데,
살 맛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게다.

녹색이 저리 빛나고
햇살이 이리 따스한데,
갈 길 잃어
망연자실 해매고 있을게다.
사명이 다했는데,

깨어난 이들,
부활의 증인들에게 밀려,
전선에서
이제는 죽어나갈게다.

기세 좋게 첫 것들
먹어 치웠지만
고센 땅 피를 뿌린 집들은
감히 넘어가지 못했었다.
2020 해에도,
그리스도 핏값치른 이들과는
물렀거라,
죽음의 역병
코로나 네 이 놈아,
빨리 어서 썩 꺼져라.
미국 땅에서
처용의 노래 다시 부르리라.

길을 걷다,
뽕나무 밑을 간다.
어렸을적
할미는 누에치던
옆집 일해 주고
손주 옷 사입혔었다.
오래전 떠난 할미 생각
떠 올라,
삶과 죽음을 넘어
봄노래
부활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되뇌이며 걷는다.

죽음의 신,
네 이놈 역병아

이제 썩 물렀거라.
할미 사랑으로
님의 사랑으로
생명과 영생의 길
걸었노라.
부활의 새 날 오리니,
죽음의 길 넘어
새 길 열리고 있다.
뽕나무 옆을 지나며,
난 삭개오가 되고 있다.

<영어이야기 11페이지에서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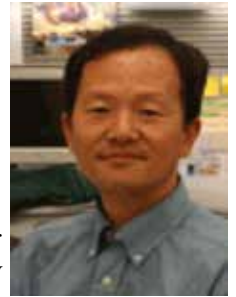
Democrats 또는 줄여서 Dems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단어의 많은수가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에서 왔기 때문에 어원을 알면(물론 다 알기도 힘들고 그럴필요도 없지만) 뜻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말에 침투해있는 한자어를 한자의 의미를 알면 명확하게 뜻을 알수있는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과학자들이 COVID-19을 예방하기위해 vaccine(백신)을 개발중인데, vaccine은 Latin어의 “소(cow)”를 뜻하는 vaccana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Edward Jenner(제너)가 우유를 짜는 여인들이 소의 역병인 우두(cowpox)에 걸린 후(약간 앓음), 당시 사망율이 높았던 천연두인 천연두(smallpox)에 걸리지 않는것을 보고, 소의 우두고름(cowpox pus)을 팔에 놓아 예방접종의 시초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두접종, 즉 vaccine(백신)이 나오게된 연유입니다. 백신주사나 예방접종은 vaccination입니다. 제가 미국에온 1976년만해도 여권에 우두접종과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증서를 첨부하여야 했습니다. 제 팔에는 아직도 우두자국(vaccination)이 남아 있습니다. 천연두는 1980년에 공식으로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완전퇴치를 선언했습니다. 두창인 천연두로 인해 얼굴에 얼은자국이 생긴 얼굴을 pockmarked face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조말 지식영이 종두시행을 처음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coronavirus와 비슷한 독감(flu: influenza)때문에 매년 독감예방주사(flu shot)

를 맞고 있습니다. Influenza의 flu는 flow(흐르다)의 뜻으로 옛사람들이 별들이 지구로 흘러들어오면서 생긴다는 병으로 influenza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flow의 뜻인 flu가 들어간 어휘를 보면, influence(영향을 주다: 안으로 흐르므로), fluid(유체: 흐르는 물체), fluent(유창한: 거침없이 흘러가듯 말을 하므로), affluent(풍요한: 한쪽으로만 흘러가므로)를 들수있습니다.

화장지(toilet paper)가 처음엔 품귀현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Target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Panic Buying(두려움 때문에 사(다놓)는것)이 조금 사라진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저의 집에도 라면 한상자가 아직 있으니 화장지사는 사람처럼 안심이 되는군요. 신문기사에 따르면, 직장에 나가는 모든사람들이 집에 머물경우, 가정용 화장지소비는 40%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보건장관(US Health Secretary)이 이런말을 하였더군요. “Toilet paper is not an effective way to prevent getting the coronavirus, but they’re selling out.”(화장지가 coronavirus에 감염되는것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화장지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oiletries는 칫솔, 치약, 빗, 비누, shampoo등 기본 몸관리에 사용하는 화장품류를 뜻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봅시다.”(We must not let hope abandon us) 아무쪼록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I hope everyone is doing well.) Stay safe.

전염성 바이러스와 알버커키



최성원

UNM Health Sciences Center
PhD in Pharmacology

저는 약리학 전공자로서 의대 본과 학생들 및 대학원생들의 면역약리 및 독성약리학을 가르쳤고, 연구는 프리라디칼약리 및 폐질환 분야입니다. 세부 분야는 결핵 치료 약물/진단 기법 개발, HIV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세포의 autophagy 자가포식 기전 연구입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에 대하여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분들께서도 언론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시도록 몇 가지 사항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간략하게 작성하였기에 가장 기본되는 정보만을 알려드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상의 예방책 및 치료는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 지닌 방어기전 즉, 면역기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를 감염, 발병시키는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기전 및 최근의 연구 동향, 그리고 치료제가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께서 어떻게 전염성 폐질환을 극복하셨는지 말씀드립니다.

1. 바이러스: 정의, 구조, 생물학적 계통

바이러스는 핵산 (DNA 혹은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로 둘러 싸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1). 혼자는 증식이 불가능하여,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 사람의 세포에서 복제 증식합니다. 생물학 분류에서는 생명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크기는 사람> 세포>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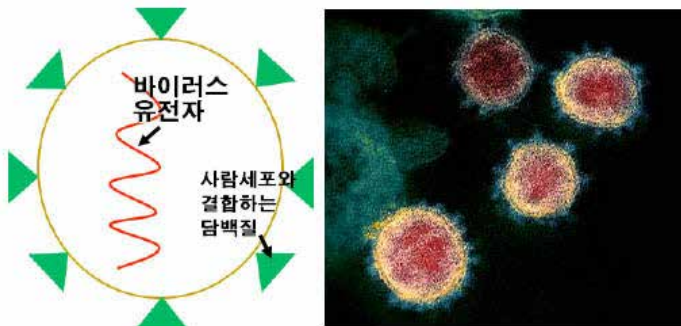


그림 1. 바이러스 구조 (출처 www.nih.gov/news)

크기를 과장하여 비교하면 뉴멕시코> 집 > 의자> 밥 그릇 순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자료에 의하면 3,600 species (종)이 존재합니다. 이미 30,000 종의 유사 변종이 보고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1(4페이지)을 보시면 이번에 문제가 된 COVID-19는 SARS 바이러스과 같은 Coronaviridae family 속해있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메커니즘

코로나바이러스는 기관지 상부 ciliated 섬모세포에 결합합니다 (그림 2, 3). 결합 후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유전자 및 바이러스의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등을 생산, 증식, 섬모세포로부터 방출, 다른 세포들을 확대 감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된 세포의 사멸, 기도 airway의 막힘 등으로 인하여 호흡 장애가 유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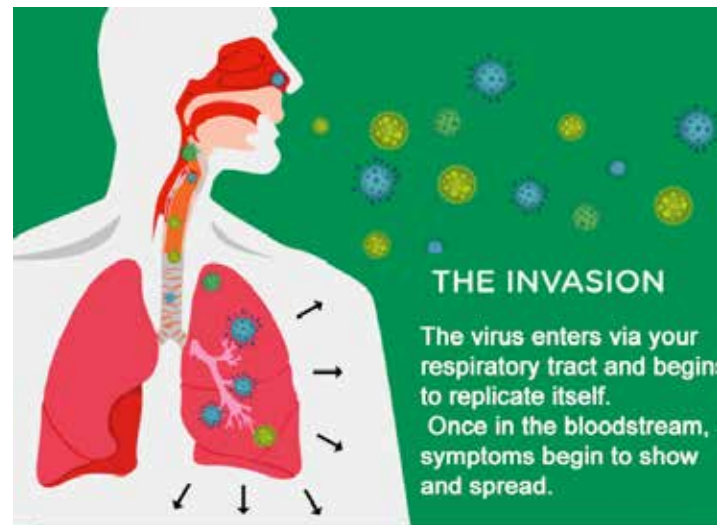


그림 2.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출처, <https://www.hippo.co.za/blog/health/>

3.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기본 전략은 (1) 치료약물 drug을 만들거나 (2) 인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면역기능으로 제거하는 특이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원 즉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 4). 즉, 침입한 바이러스가 폐의 airway 기도에 있는 섬모세포와의 결합을 막거나 섬모세포 내에서의 복제, 증식을 막는 것 혹은 섬모세포에 결합하기 이전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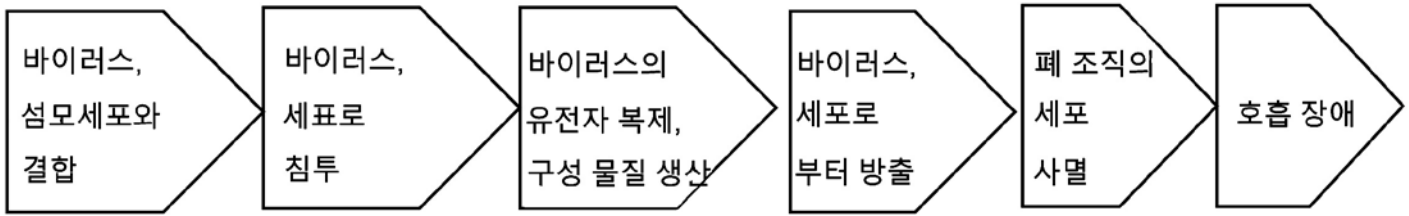


그림 3 바이러스 인체 감염/ 발병 메카니즘

단계에서 면역적으로 제거하는 것 입니다.

첫째, 치료제 개발로서는, 바이러스의 세포 결합 >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구성 물질 생산 > 세포로부터의 방출 각 단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체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 입니다. 즉, 바이러스 구성 물질 중 가장 효과적으로 인체에서 항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 (주로 작은 크기의 단백질)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축의 결핵균 Mycobacterium bovis (BCG) 을 불활성화 시킨 후 백신으로 주사, 몸에서 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도록 하므로써 결핵균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4. 예방과 소독

예방에 관한 제일 공신력 있는 지침은 질병통제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https://www.cdc.gov/>) 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그림 5). 그 상세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바이러스 연구실에서는 연구자 보호를 위해서 개인 방호 장비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을 착용 합니다. 여기에는 전신을 감싸는 일회용 보호복 뿐만 아니라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PAPR)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다만, 허락된 감염 정도가 약한 바이러스를 다룰 경우에만 일회용 N95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바이러스의 감염도에 따라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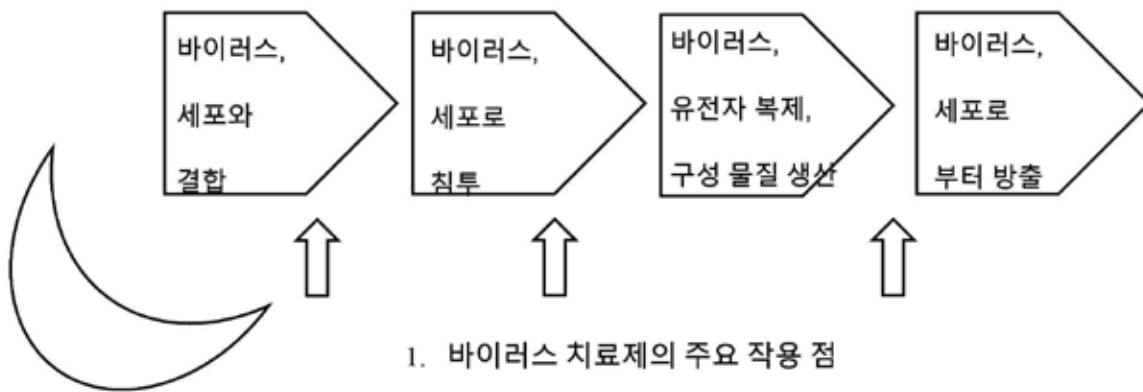


그림 5

등급이 달라서 그에 따른 보호 장비를 달리 사용합니다. 고가의 PAPR은 소독재를 사용하여 소독합니다. 이 소독제들은 병원 및 관련 연구기관에만 판매되는 약물이므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1) 바이러스의 외피를 감싸는 지질막을 터트리거나 (2) 바이러스 전체를 고정 fixation 시켜 불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독재의 주성분은 강한 알칼리 성분으로서 바이러스의 외피막 지질층을 파괴시킵니다. 시설에 대한 소독은 교육받은 전문가가

기화시킨 포름알데하이드 혹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를 사용하는데 이 약물은 바이러스 자체를 고정 fixation 시킵니다. 이런 약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받은 전문가만 사용해야 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사용한 약물도 물로 완전 세척 제거하여야 합니다.



1. 바이러스 치료제의 주요 작용 점

바이러스 백신 - 항체 생성 촉진

2. 바이러스 백신의 주요 작용 점

그림 4. 바이러스 치료제와 바이러스 백신의 주요 작용 점.

바이러스 감염 정도가 약한 액체는 Clorax에 섞어 1일 두므로써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바이러스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6.알버커키와 요양원

5. 인체의 바이러스 제거 메카니즘

위에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인위적인 치료제로서 100% 효과있는 약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후보 물질들을 시험하는 중이라하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치료방법은 우리 인체의 면역메카니즘 입니다. 자신의 몸의 면역메카니즘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는 제약회사가 만든 그 어떤 약 보다도 정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의 면역메카니즘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매일 방송에서 바른 식생활, 운동 등을 권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좋은 식단이라 함은 영양소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식 없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충분한 수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햇빛을 쬐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6, 표2:4 페이지). 2010년 이후로 발표되는 논문을 보면 면역세포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 기능으로서 자가포식 autophagy 메카니즘이 선천면역 innate immunity의 주요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포의 자가포식 메카니즘은 1960년대 초부터 연구되었으며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이 주어진 연구 분야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이 메카니즘의 인체 방어 작용을 보면 비타민D는자가포식 여러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므로써, 바이러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방출되어 바이러스를 파괴하도록 돕습니다. 그림 6은 이 메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쉬운 예를 든 것으로서, 면역세포의 일종인 macrophage 대식세포 (大食細胞) 가 포식작용으로 붙잡은

100년 전 알버커키는 미국 내에서 유명한 결핵환자 치료 요양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결핵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던 시기였기에 유일한 치료 방법은 공기 좋은 이곳에 와서 현재의 Presbyterian 병원 일대에 설치된 개인용 움막에서 지내며 균형있는 식사 그리고 햇빛을 쬐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7). 당시 발행된 신문을 보면 환자들은 이곳에서 2년 요양하였으며 치료율은 50%였다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국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들도 이곳에서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1929년 부터 1931년 까지 이곳에서 요양하셨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될 때마다 초기에는 치료제/백신이 부족, 전무합니다. 또한 개발을 시작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발이 되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모두들 의약품 식료품 사재기로 인하여, 특히 알버커키처럼 고립된 지역에 사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세기 전 이 곳을 거쳐가신 우리의 선조들로 부터 한 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균형된 식사와 햇빛>으로 폐질환을 극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식사가 우리 몸에 기운을 더해주고 질병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햇빛이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점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이 체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것은 위에 열거한 논문들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결핵이 HIV 환자에서 재 발병되는 점 때문에 자가포식 메카니즘은 주로 HIV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햇빛을 쬐이거나 비타민 D섭취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한 논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역세포의 자가포식 메카니즘이 인체에

<18페이지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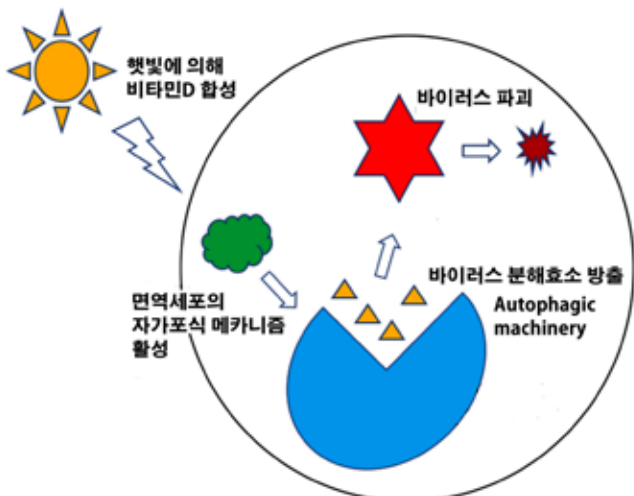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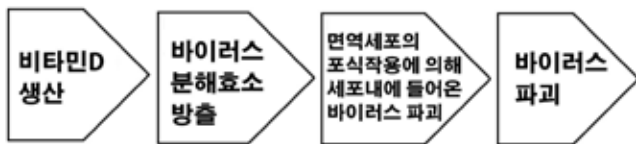


그림 6. Macrophage (대식세포, 大食細胞)의 자가포식 autophagy 메카니즘



그림 7. 알버커키 요양원, 1920년 촬영. 현재의 Presbyterian 병원 모체가 된 의료시설.

사진 제공자, 알버커키 지역 사학자 Ms. Mo Palmer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끝치지 말고 찾으세요!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 91:1-3) 아멘

Never stop exploring Coronavirus Vaccine!!! Coronavirus 가 번지기 시작한 지가 3~4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병마는 어떻게 번식력이 강한지 세계 각국으로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약 15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 약 7천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그 vaccine이나 처방약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 23일 보고된 것을 보니까 더 놀랐는데 총 감염자 35만 명, 숨진 자가 만 오천 명, 회복된 자가 10 만 명 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비상시에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규례를 따르며 병마와 싸워야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준 몇 분들의 의학박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비책들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A. 첫 번째로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은 집 안에만 앉아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정원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동네를 산책하든가 또는 하이킹을 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면역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면역력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햇볕을 피부에 쬐면 거기서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것이 칼시움 섭취를 잘 되게 하여 건강한 뼈대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실내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감염된 자들이 있는 곳이 위험하다고 하며 야외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 B. 햇볕은 UV light부터 IR light 합친 것이 태양으로부터 오고 있는데 한가지 신비한 사실은 UV light 중 UV-A (400-315nm), UV-B (315-280nm), UV-C (280-200nm) 세가지 종류 중 UV-C는 전리층 (Ionosphere, 대기권의 맨 바깥 부분)에서 많이 감쇠가 되어서 지구상에는 아주 약하게 도달하며 Section A에서 언급한 비타민 D를 만드는 UV light는 UV-B (311 nm)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UV-B light, 311nm 램프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UV-B lamp 를 집안에 쬐

놓고 그 앞에서 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만든 것은 그 빛의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외선은 지구를 적당하게 덥게도 만들어 여름도 되고 사계절을 만들어 줍니다.

- C. 현재 Coronavirus 가 많이 번져가고 있는 지역은 위도상으로 보아서 북위 30~50도 근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겨울이 되어서 그곳에 바이러스가 극성을 많이 부리는듯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바이러스는 남반구까지 계속 번지는 것을 보며 참으로 심각한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인네들이나 면역성이 낮은 분들은 강도가 높은 비타민 C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D. 비타민 C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효능을 주는 데 큰 문제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C를 많이 가진 음식이나 비타민 C supplement를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 등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oranges, strawberries, kiwi, bell peppers, broccoli, kale 그리고 spinach 등입니다.
- E. 비타민 C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비타민 C는 강한 antioxidant (AO) 인 데 혈액의 AO 양을 늘려주고 결과적으로 심장질환을 감소시켜 줍니다.
- F. 둘째로 혈압을 내려 줍니다.
- G. 셋째로 LDL cholesterol과 triglyceride를 낮추어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H. 넷째로 체내의 uric acid 양을 감소시켜 gout attack을 줄여 줍니다.
- I. 다섯째로 철분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 J. 여섯째로 면역성을 늘려 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섯까지는 길게 설명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더 있는데 이정도에서 그만합니다. 제 결론은 비타민 C가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많이 드셔야 하나 정신없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외는 250mg씩 몇 년을 복용했는데 지금은 500mg씩 먹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이 두려운 Corona virus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가지 사기, 금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사기(COVID-19 CONS)



The Pose 속임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나 특수 의료기구를 구입하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The Pitch 허위선전

겁먹게 만들고 스스로를 보호하게 유도한다.

The Approach 사기방식

이메일로 신용카드번호를 받아내고 상품주문을 하게한후 잠적. 또는 링크를 보내어 이를 통해서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훔쳐낸다.

The Prevention 예방

코로나바이러스관련 최신정보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수하고 이메일로 오는 정보를 경계함이 좋다. 코로나 백신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아마존 사기(PHISING AMAZON)



The Pose 속임수

사기꾼들은 작년에 회사가 35억 개 이상의 패키지를 판매한 아마존 회사 직원으로 가장한다.

The Pitch 허위선전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확인하기 전에는 주문한 상품 패키지를 배송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The Approach 사기방식

사기꾼은 수백만 개의 임의 이메일을 발송한다. 이메일 안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컴퓨터에 맬웨어를 설치하는 링크가 들어 있다.

The Prevention 예방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존 웹 사이트로 직접 이동할것.

센서스사기(CENSUS SCAMS)



The Pose 속임수

인구조사 센서스 직원으로 가장한 속임수를 쓰는 수법이다.

The Pitch 허위선전

사회보장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The Approach 사기방식

인구조사 센서스 직원으로 가장하여 가정 방문을 한다.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전화로 접근하기도 한다.

The Prevention 예방

인구조사국에서는 절대로 개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부금을 강요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 상세한 점은 웹사이트 2020census.gov 를 참조하면 된다.

직업 소개 사기(JOB FRAUD)



The Pose 속임수

사기꾼은 온라인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구직자의 이력서를 찾아낸다.

The Pitch 허위선전

좋은 직장같이 보이는 곳에서 직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선물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통보를 한다.

The Approach 사기방식

일반적으로 이메일 또는 전문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친다.

The Prevention 예방

실제 일자리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 채용은 사업체가 지불합니다).

선거사기(ELECTION SCAMS)



The Pose 속임수

사기꾼은 정치 활동위원회 이름으로 가짜 광고를 보내거나 여론 조사 또는 캠페인 자원 봉사자로 가장한다.

The Pitch 허위선전

신용 카드 번호를 제공하거나 기프트 카드 또는 전신 송금으로 "기부금"을 보내도록 합법적 모금 행사인 것처럼 가장한다.

The Approach 사기방식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후보자가 연락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쓴다.

The Prevention 예방

원치 않는 허위선전은 후보에게 기부하지 말아야 한다. 후원하고 싶은 후보가 있으면 후보에게 직접 연락하여 후원해야 안전하다.

메디케어 사기(MEDICARE CONS)



The Pose 속임수

사기꾼은 암이나 의료 기기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무료 DNA swab 검사를받을 수 있다고 알린다.

The Pitch 허위선전

무료 건강 관리를 받으려면 Medicare 번호만 제공하면 된다고 말 한다.

The Approach 사기방식

이 제안은 일반적으로 전화 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미니 밴을 타고 동네를 다니며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선전하기도 한다.

The Prevention 예방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Medicare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15페이지에서 계속 '전염성 바이러스..>

침입한 전염성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기본 방어 작용이라는 점이 2004년 이후 매년 발표되는 수 천편의 논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이번 대유행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도 동일한 메카니즘의 제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예방의학자들이 권장하는 식단, 운동 등 면역력 증진 방법의 밑 바탕에는 이러한 인체의 방어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표 1. 임상적으로 중요한 바이러스

Family (Total 71)	Species (Total 3,600)
Coronavirida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virus (SARS), COVID- 19
Filoviridae	Ebola virus
Flaviviridae	Hepatitis C virus
Hepadnaviridae	Hepatitis B virus
Herpesviridae	Herpes simplex type 1, Herpes simplex type 2
Hepeviridae	Hepatitis E virus
Orthomyxoviridae	Influenza virus 감기바이러스
Paramyxoviridae	Measles virus 홍역
Picornaviridae	Hepatitis A virus, Poliovirus 소아마비
Poxviridae	Smallpox 천연두
Retrovirida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표 2. 선천면역 innate immunity 에 의한 바이러스 억제를 보고한 논문

논 문	연구에 사용된 바이러스
Autophagy, apoptosis, vitamin D, and vitamin D receptor in hepatocellular carcinoma associated with hepatitis C virus. Abdel-Mohsen MA, El-Braky AA, Ghazal AAE, Shamsya MM. <i>Medicine (Baltimore)</i> . 2018 Mar;97(12):e0172.	Hepatitis C Virus
Vitamin D3 supplementation alleviates rotavirus infection in pigs and IPEC-J2 cells via regulating the autophagy signaling pathway. Tian G, Liang X, Chen D, Mao X, Yu J, Zheng P, He J, Huang Z, Yu B. <i>J Steroid Biochem Mol Biol</i> . 2016 Oct;163:157-63.	Rotavirus
Vitamin D Metabolites Inhibit Hepatitis C Virus and Modulate Cellular Gene Expression. Gutierrez JA, Jones KA, Flores R, Singhania A, Woelk CH, Schooley RT, Wyles DL. <i>J Virol Antivir Res</i> . 2014 Oct 6;3(3).	Hepatitis C Virus
Toll-like receptor 8 ligands activate a vitamin D mediated autophagic response that inhibit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 Campbell GR, Spector SA. <i>PLoS Pathog</i> . 2012;8(11):e1003017.	HIV
Autophagy induction by vitamin D inhibits both Mycobacterium tuberculosis and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 Campbell GR, Spector SA. <i>Autophagy</i> . 2012 Oct;8(10):1523-5.	HIV
Vitamin D inhibit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 and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fection in macrophages through the induction of autophagy. Campbell GR, Spector SA. <i>PLoS Pathog</i> . 2012;8(5):e1002689.	HIV
Vitamin D and HIV: letting the sunshine in. Spector SA. <i>Top Antivir Med</i> . 2011 Feb-Mar;19(1):6-10.	HIV
Hormonally active vitamin D3 (1alpha,25-dihydroxycholecalciferol) triggers autophagy in human macrophages that inhibits HIV-1 infection. Campbell GR, Spector SA. <i>J Biol Chem</i> . 2011 May 27;286(21):18890-902.	HIV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미국장로교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Albuquerque)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영어예배(1부): 오전 9: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1:00(사택)13804 Spirit Trail Pl.NE ABQ
 목요기도회: 오후 7:00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4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알버커키 Albuquerque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자동차정비 Auto Repair
----- 건축/페인트 Painting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교회 Church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 단요가 Dahn Yoga ----- 알버커키505-797-2211 커틀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 리커스토어 Liquors -----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 부동산 Realtors -----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 세탁소 Dry Cleaners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 주택용자 Loan Officer -----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치과 Dental Clinic -----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 호텔 Hotel -----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4775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파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0년5/6월호

발행일 : 2020.5.9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비용은 광고주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르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Korean BBQ
우리집
& **Sushi**
Hours
Monday-Thursday
11:30am-2:30pm
5:00pm-9:30pm
Friday-Saturday
11:30am-10:00pm
Sunday Closed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